

새로운 관광수단으로서 지리여행의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안

박종관*

The Promotion and Content Composition of Geotravel as a New Way of Tourism

Jongkwan Park*

요약 : 지리여행은 지리학의 현장답사에 근거한 새로운 테마여행이다. 지리여행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탐구하는 감성여행이며, 역사관광을 뛰어넘는 포괄적 환경여행이다. 지리여행은 가족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역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간여행으로서의 지리여행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역 단위의 지리여행법이 효율적이다. 지리여행 콘텐츠는 융복합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인간과 물은 지리여행 콘텐츠의 통합 주제어이다. 지리여행은 초·중등학교 학생을 위해 특화된 체험여행이기도 하다. 지리여행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지리여행의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은 지리여행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지리여행 큐레이터의 육성도 시급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지리여행 상품도 개발되어야 한다. 지리여행은 창조관광 달성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지리여행 콘텐츠, 자연 지리여행, 인문 지리여행, 지리여행 큐레이터, 지리여행 캐릭터, 창조관광

Abstract : Geographical travel(Geotravel) is new theme tourism based on geographical fieldwork. Geotravel is an emotional journey to explore physical and human landscapes, and is also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one beyond the scope of historical tourism. Geotravel provides an optimized regional content and programs for experiential tourism of the family.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spatial tourism, the geotravel methodology in catchment unit is strongly recommended. The geotravel content has to be developed in convergence standpoint. The integrated key words of geotravel are human and water. Geotravel is a pattern of specialized edutainment tourism for the public and elementary, secondary school students as well. The development of geographical travel courses is necessary for the popularization of geotravel. Mobile apps will be the medium that delivers easy geographical travel information. And geotravel curator has to be raised quickly for the generalized easy and interesting geotravel.

Key Words : geotravel content, physical geotravel, human geotravel, geotravel curator, geotravel character, creative tourism

이 논문은 2011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1).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and Dept. of World Heritage, Graduate School, Konkuk Univ.), jkpark@konkuk.ac.kr

1. 서론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주말여가 형태 및 여행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2004)가 전국의 3,038명을 대상으로 주5일제 근무 실시 이전과 이후의 여행패턴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행빈도는 연평균 약 2배, 이동시간은 1.2배, 이동거리는 60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도 늘어나 여행패턴이 숙박 위주의 행태로 바뀌었으며, 이와 함께 여행경비도 약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행기간의 증가이다. 주5일제 근무 이전에는 당일관광(53.6%)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실시 후에는 당일관광의 비율이 줄어든 대신 1박2일(53.3%)과 2박3일(34.2%) 등 숙박관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여행일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보다도 국민들의 여행이 가족 중심의 여행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행태의 질적 변화의 필연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미래의 여행패턴이 수단과 목적의 선별적 활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권오홍, 1987)이라든지, 후기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 추구하고 함께 관광에 있어서도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윤재진, 1994)이라는 등의 주장은 테마 위주의 고품질 여행이 관광의 주류를 이룰 것을 예견하고 있는 연구 사례이다. 또한 사이버 여행패턴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의 eBusiness 전략을 위해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송재호 등, 2003), 최근의 여행패턴이 시설물 중심의 여행에서 이미지 중심의 여행으로, 그리고 현실 중심의 여행에서 감성 중심의 여행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김홍민·이영주, 2012)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관광의 질적 변화를 예견한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3일에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결과,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이를 위해 정부는 대체휴일제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관광공간 선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음식관광이나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1순위로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를 꼽았으며, 매력적인 관광 소재 발굴(4위)과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 정보 제공도 확대(10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관광 프로그램과 관광 소재, 그리고 관광 정보는 관광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콘텐츠이다. 왜냐하면 특성의 볼거리나 놀거리, 먹거리가 없는 관광지는 외부인들이 방문할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3가지 관광 콘텐츠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기반한 고품격, 고품질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현장에 피드백 되어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고, 정부가 제시한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리여행의 정의와 역할, 지리여행 콘텐츠의 성격과 구성, 그리고 콘텐츠 사용법과 사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지리여행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체험여행을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될 것이다.

2. 지리여행의 정의와 필요성, 역할

1) 지리여행의 정의와 동향

지리학은 현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연구하는 공간과학이다. 지구 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 물,

지형, 생물 등의 자연요소와 인간의 행동요소들이 어우러져 지리학의 근원을 이룬다. 환경과 인간은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리학은 관광 콘텐츠의 중심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리학이 흥미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동력의 학문이며, 새로운 관광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수단의 학문임을 의미한다. 특히 지리학은 현장답사를 근간으로 존립되고 있는 학문인 바, 이러한 지리답사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관광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리여행(地理旅行, geographical travel, geotravel)을 국어사전식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혹은 지구상의 지형, 생물, 물, 기후, 도시, 교통, 주민, 산업 따위의 상태를 즐기는 여행’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리여행은 머리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여행이다. 지리여행은 감성여행이며, 관찰여행이다(박종관, 2005). 지리여행은 역사 중심의 관광패턴을 크게 뛰어넘는 포괄적 국토환경여행이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기권, 암권, 수권, 생물권 등의 4권역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는 신개념 탐구여행이다. 지리여행은 특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식주를 탐미하는 향토여행이기도 하다. 지리여행은 우리 주변의 산지, 하천, 해안지형 및 물이 빚어낸 자연경관, 그리고 이러한 자연경관 위에 펼쳐지고 있는 도시, 농산어촌의 생활양식이 시공간적으로 결합된 지리콘텐츠(geographical content)를 현장답사를 통해 이해하는 체험여행인 것이다. 본고에서 ‘지리관광(geographical tourism)’이 아니라 ‘지리여행(geographical travel)’이라 명명하고 있는 것도 활동성과 기동성이 강한 현장 답사여행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리여행은 집박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다.

지리여행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다. 노웅희·박병석(1994)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리 공부의 보충 목적으로 ‘교실밖 지리여행’을 출간하였으며, 윤용(1995)은 ‘북한의 지리여행’을 저술해 북한의 경제, 지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그 후 한동안 지리여행 저술서가 나오지 않다가 고정아(2000)가 어린이를 상대로 한 ‘우리강산

지리여행’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박종관(2005)은 일반인들의 지리여행 방법론을 관광 관점에서 저술한 ‘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저술된 최초의 교양서로 환경여행과 생태여행을 지리여행의 관점에서 즐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후 ‘땅이 가족의 황당 지리여행’(박정애·엄정훈, 2007), ‘세계문화여행 역사·지리여행’(글로벌스, 2009), ‘1등으로 보는 세계지리여행’(이승진, 2012), ‘한국지리여행’(박종관, 2012) 등과 같은 교양학습서와 대학교재가 발간되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도 지리여행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다. 한편, 지리여행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리교사들의 해외답사보고서를 정리한 출간물들이 시리트로 발간되고 있다(지리교육연구회지평, 2005; 지리누리, 2007; 전국지리교사모임, 2009 등). 또한 지질학 분야에서도 ‘제주도 지질여행’(한국지질자연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06)이나 ‘주말지질여행’(한국지구과학회, 2009), ‘한탄강 지질탐사 일지’(원종관 등, 2010) 등과 같은 답사 여행서가 활발히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리학계에서도 지리여행과는 성격이 다르나 지형학자를 중심으로 자연 중심의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예를 들어, 전영권, 2005, 2010; 정필모·서종철·전영권·신영규, 2010; 박경·김창환, 2012; 권동희, 2011, 2013a, 2013b; 박민영·박경, 2012; 박종관, 2013 등). 그러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이란 수려한 지질·지형 경관을 즐기는 관광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여행보다는 그 대상범위가 훨씬 좁다. 지리여행은 지질·지형 경관은 물론,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물 경관을 관광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향토의 역사와 문화 등의 인문학 내용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지리여행 콘텐츠이다(박종관, 2012).

한편, 지리여행이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박종관은 1998년 3월부터 ‘레츠고 지리여행’이라는 일반선택 교양과목을 KCU(Korea Cyber University), SCU(Sejong Cyber

University), 건국대학교 등에서 개설해 오고 있으며, 전영권은 2004년 3월부터 '대구지리여행'을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개설, 현재 대구권 대학의 인터넷 공동 강좌로 강의하고 있다. 또한 박종관은 2012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전공기초과목으로 '한국지리여행'이란 과목을 개설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TV(OUN-TV) 강좌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15년 2월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땅 지리여행'이라는 답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http://www.sacticket.co.kr>).

외국의 경우 역시 지리여행과 관련된 연구 흐름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오투어리즘 주제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Joyce(2007)는 지오파크와 지오사이트와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호주의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설명, 이는 지오투어리즘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라 언급하고 있다. 또한 Ollier(2012)는 지오투어리즘은 지질학과 지형학의 연구 영역이며, 교육과 지속가능 환경보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의 발전을 위해서 geodiversity라는 '지표면의 지질과 지형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지적도 보고되고 있다 (Slomka, 2008; Thomas, 2012). 지리여행에 대한 외국의 중요 사례는 연구논문 보다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리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리여행 사이트(<http://travel.nationalgeographic.com>)를 보면 지리여행을 'geotravel' 또는 'expedition(탐험 또는 원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지리여행 콘텐츠로 자연, 도시, 음식, 체험 등과 관련된 세계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리여행 사이트(<http://info.geotour.ru>) 역시 자연경관과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를 지리관광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아이슬란드(<http://geotravel.is>)와 아제르바이잔(<http://geo-travel.az>)의 경우에는 지리여행 소재를 주로 지형경관을 중심으로 하여 취급하고 있다.

2) 지리여행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의 관광 콘텐츠는 주로 역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만 년의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와 관련된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로 가득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11곳의 내역을 보면, 10곳이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등과 같은 문화유산들이며,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이 역사·문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문화 편중의 관광 콘텐츠만으로는 우리의 국토공간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 이러한 콘텐츠로는 국내여행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국립공원과 같은 관광지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산, 강, 바다와 같은 대자연으로 고궁, 사찰 등의 관광 소재만으로는 우리의 자연경관을 음미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삶의 공간을 탐미하는 지리여행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리여행과 비슷한 탐구 성격을 지닌 여행으로 생태관광과 지질관광이 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창녕, 파주, 태안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선정한 생태관광 모델사업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테마여행이다. 지질관광 역시 지질공원과 함께 생긴 테마여행으로 2012년 환경부가 마련한 국가지질공원제도도 지질관광 대중화를 위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2013년에 지정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등 모두 6곳이 지정되어 있다.

생태관광이나 지질관광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성급함이 있으나 벌써부터 대중화를 위한 적지 않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생태관광 사업은 원래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주변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더불어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환경부로 생태관광 업무가 이관된 후로는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등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다수의 보호지역이 생태관광지로 소개되며 생태관광 본래의 사업목적이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질관광의 경우에도 울릉도의 지질관광 안내서에서 보듯 광물과 암석에 관

한 깊은 지질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질관광의 일반화를 위해 지질 관광의 콘텐츠 개발이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리여행 콘텐츠는 이러한 생태관광이나 지질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선 지리여행이 지질관광이나 생태관광과의 다른 점은 지리여행은 점(點)의 여행이 아니라, 답사 코스를 따르는 공간 여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공간 특성을 관광 대상으로 하는 지리여행은 어떤 지역의 자연은 물론 문화, 역사, 민속 등 인문적 특성 모두를 관광의 관심대상으로 삼는다. 장(場, field)의 환경 특성을 기초로 한 21세기형 문화여행은 지리여행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융복합 콘텐츠이다. 지리여행 콘텐츠는 우리의 땅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러한 땅 위에서 선조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이루어 왔는지를 흥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리여행은 자연스럽게 지구환경 보전사상을 균형감 있게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향토애를 느끼고 또 우리 땅의 가치를 인식해 이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리여행은 가족 중심의 여행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리여행은 주5일제 근무에 발맞춰 가족 단위의 1박2일 여행을 위해 제안된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빠, 엄마와 아이들이 놀러가서 그곳의 자연이나 문화, 특산물, 민속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지리여행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을 것이다. 방문지의 특색에 대해 상호간 서너 번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지리여행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도 매우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지리여행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을 비롯해 여러 체험여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리여행은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실 밖 현장학습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30명 전후의 학급 단위의 수학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는 지리학 답사가 현장체험 학습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호기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리여행은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국민의 생활여행으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지리여행의 역할

(1) 스토리텔링 산실로서의 역할

지리는 그 자체가 이야기책이다. 지표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지리의 오래된 스토리이다. 스토리텔링이란 역지로 개발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전부터 회자되어 온 애깃거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탈바꿈되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차별화되길 원하는 동물이다. 타인과 동질성을 갖고 싶어하는 동시에 차별성도 갖고 싶어 한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적 심리를 잘 이용한 어떤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다면 각 고장의 차별화된 스토리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체험학습 도구로서의 역할

지리학은 사회 모든 분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학문이다. 대학의 모든 전공은 현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은 현장에 거의 모든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리학은 현장학이다. 지리적 요건을 기반으로 발생된 역사와 일반사회 현상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매우 요긴한 수단이다. 대규모 수학여행의 병폐를 타파하고 교과외의 현장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학급 단위의 현장학습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주학습을 통한 주제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코스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공간 인지력을 함양시킨다는 것은 국토공간 적응교육을 위한 시발점인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관광의 부흥을 위한 필수수단이다. 허남철(2000)은 고등학교 1학년 560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효율적인 현장학습 장소로 수려한 자연환경(37.5%)과 향토문화 공간(35.9%)을 꼽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여행이 현장학습을 위한 최고의 대안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지역경제를 위한 지리여행의 장점은 공간을 이동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1박2일 콘텐츠로 구성된 지리여행은 그만큼 한 군데에 머무르는 여행보다는 비용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표 오지 중의 한 곳인 강원도 영월의 경우 과거 동강댐 반대운동의 혜택을 관광적 관점에서 톡톡히 본 곳으로 평가된다. 동강의 비경이 전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진 이후 래프팅 콘텐츠가 기존의 단종과 김삿갓, 천문대 등의 콘텐츠와 합쳐지면서 영월의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제주도 올레길을 비롯한 지리산 둘레길, 동해안 해파랑길 등에 펼쳐진 지리여행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경우, 지리여행은 이들 탐방로 주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향토 특색을 반영한 아담한 카페도 한 지역의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선이나 철암 등의 폐가와 같은 옛가옥의 외형을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만 새롭게 단장한다면 그곳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찰 것이다. 이 경우도 지역성을 알리는 세부 지리여행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지리여행 콘텐츠의 성격과 구성

1) 유역 콘텐츠

(1) 필요성

지리여행은 공간여행이다. 여행의 동선을 소화하기 위해 지리여행은 기본적으로 1박2일의 여행행태를 지향한다. 특정 지역의 지역성 파악을 위해서는 보통 1박 정도의 체류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지점의 방

문을 통해서만이 그 지역의 자연경관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1박2일 간의 드라이브를 즐기며 마을 곳곳을 탐방하는 여행법을 따른다. 지역의 사진들을 지도 위에 투영시키면서 자신만의 여행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지리여행이 다른 여행과 크게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지리여행의 콘텐츠는 유역 단위로 개발되어야 한다. 유역은 동일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등질지역이다. 하천이라는 자연체가 상류와 하류 지역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지리여행 코스는 현실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리여행의 콘텐츠는 유역의 동선을 고려해 자연과 인문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게 고안되어야 한다.

(2) 유역 콘텐츠 개발

① 유역 지리여행의 의의

지리는 본디 자연의 기본 단위인 유역(流域)으로 정리된다. 유역은 땅(地)의 기본을 이루는 자연논리(理)인 것이다. ‘행정’이 인간이 만든 지역단위라고 한다면 ‘유역’은 자연이 만든 지역단위이다. 유역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유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천은 분류 최상류 지점에 발원지를 갖고 있다. 발원지에서 배어나온 지하수가 모여 계류를 이루며 흐르다가 하류 평지를 지나며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유역이라는 지리공간을 탄생시킨다. 유역은 집수구역(集水區域)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인간의 삶이 시공간적으로 축적된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하천 상류와 하류의 문화를 하나로 이은 통합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유역은 인간들의 삶의 결정체를 담고 있는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산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유역은 하천이라는 운송로를 통해 동일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인간의 삶의 역사가 새겨진 유역은 오래 전부터 스토리가 집적된 문화 보고이다. 산지 계곡으로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곳곳의 침식경관과 퇴적경관을 토대로 인간이 오랫동안 다채로운 문화를 일궈낸 공간이 바로 유역

인 것이다. 유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피어온 곳곳의 ‘향토지(郷土誌)’를 성숙시킨 향토 공간이다. 하천 공간을 토대로 발전해 온 지리유산이야말로 유역 최대의 관광자원인 것이다.

‘지리유산(geographical heritage, 地理遺産)’이란 글자 그대로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필자는 지리유산을 향토색이 짙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리유산은 유역 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향토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은 지리유산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다. 지리유산은 스토리텔링의 보고이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활 콘텐츠의 원형이다. 현장을 연구하는 지리학이 콘텐츠학의 원류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검룡소(한강), 황지(낙동강), 뜬봉샘(금강), 데미샘(섬진강), 용소(영산강) 등 우리나라 5대 하천 발원지의 경우 수문학적 의미에서의 하천 발원지 여부를 떠나 이들 발원지에 담겨있는 지리지(地理誌) 관점의 스토리텔링은 이들 지역의 수문경관과 함께 둘도 없이 중요한 지리유산인 것이다. 관광학적 관점에서도 지리유산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전·관리해야 할 소중한 콘텐츠이다.

② 유역별 지리여행지 구분 이유

우리나라 지리여행지를 광역의 행정구역 단위를 지양하고 대하천 유역을 지리여행지의 기본 단위로 설정한 이유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역 지리여행은 유역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지리여행지를 둘러보기 위해 설정된 여행패턴이다. 이는 유역이라는 공간을 지리여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 상류로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향토의 지리적 특성을 관찰한다는 원칙은 여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유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역 지리여행은 우리 땅의 구성 특성을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한반도 동고서저의 지형 특성과 상·중·하류에 분포되어 있는 암석 경관, 그리고 하천 경관, 물 경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땅의 생김새를 가슴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섬진강 발원지를 출발해 섬진강 하구인 광양에 이르렀을 때 섬진강의 유역 형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면 섬진강 지리여행은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셋째로 유역 지리여행은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는 속살여행을 제공해 줄 것이다. 도시인들이 모르고 지냈던 그들만의 숨겨진 생활양식은 도농 간의 소통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역 지리여행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는 물의 공간으로서 지리여행이 곧 환경여행이라는 등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역의 물 환경 인식을 통해 여행지의 지역성을 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대하천 유역을 기본 단위로 한 유역 지리여행 콘텐츠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큰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③ 유역별 지리여행지 구분 사례

유역 지리여행은 여행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에 유용한 여행패턴이다. 어떤 하천변에서 상류를 바라보며 그간 다녀본 동선을 반추하고, 또 하류 지역에 펼쳐질 지리경관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유역 지리여행 특유의 강점인 것이다. 유역 지리여행은 평면 개념의 관광자원을 3D 형상의 관광자원으로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구역 단위의 관광은 지역을 평면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1은 박종관(2012)에 의해 분류된 우리나라의 유역 지리여행의 구분 체계를 수정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리여행지를 10대 하천 유역권과 그곳에 속하지 않은 5개 비유역권 등 모두 15개의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강 유역은 그 규모가 방대해 한강 본류인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이들이 만나 이루어진 한강 등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임진강은 한강 유역과 함께 묶어 지리여행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대권역을 유역 단위로 구분한 탓에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동일한 지역이 서로 다른 유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분류의 경우는 하천유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리여행지의 위치 편의를 위해 소권역은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남한강 지리여행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 광역의 행정구역명을 버리고 남한강변에 위치한 지점명을 사용해 지리여행지를 둘러보도록 정리하고 있는 것이

표 1. 우리나라의 지리여행지 구분

구분	지리여행명	권역명
10대 하천 유역권	남한강 지리여행	1. 태백권 2. 정선권 3. 평창권 4. 영월권 5. 단양권 6. 충주권 7. 여주권 8. 양평권
	북한강 지리여행	1. 인제권 2. 양구권 3. 화천권 4. 춘천권 5. 가평권
	한강·임진강 지리여행	1. 팔당권 2. 서울권 3. 포천권 4. 철원권 5. 연천권 6. 파주권
	낙동강 지리여행	1. 태백권 2. 영주·봉화권 3. 안동·예천권 4. 문경·상주권 5. 대구·달성권 6. 합천·고령권 7. 창녕권 8. 밀양권 9. 청도권 10. 진주권 11. 김해·부산권
	금강 지리여행	1. 장수권 2. 무주권 3. 대전·공주권 4. 진천·청원권 5. 부여·논산권 6. 서천·군산권
	섬진강 지리여행	1. 진안권 2. 임실·순창·남원권 3. 곡성·구례권 4. 하동·순천·광양권
	영산강 지리여행	1. 광주·담양권 2. 나주·함평권 3. 목포·영암권
	안성천 지리여행	1. 수원·용인권 2. 안성·평택권
	삽교천 지리여행	1. 아산·천안권 2. 홍성·예산권
	만경강 지리여행	1. 완주권 2. 전주권
	형산강 지리여행	1. 포항권 2. 경주권
	동진강 지리여행	1. 정읍권 2. 김제권
10대 하천 비유역권	서해안 지리여행	1. 강화권 2. 인천권 3. 안산·화성권 4. 태안권 5. 서산권 6. 홍성·보령권 7. 부안권 8. 고창·영광권
	남해안 지리여행	1. 해남·진도권 2. 완도권 3. 보성·순천권 4. 여수권 5. 남해·고성권 6. 통영·거제권
	동해안 지리여행	1. 고성권 2. 속초·양양권 3. 강릉권 4. 동해·삼척권 5. 울진권 6. 영덕·청송권 7. 울산권
	제주도 지리여행	1. 북동부권 2. 남부권 3. 북서부권
	울릉도 지리여행	1. 동부권 2. 서부권

자료: 박종관, 2012 수정

표 2. 유역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 작업 흐름표

순번	개발 작업 내용
1	우리나라 10대 하천유역 경계를 10만분의 1 지도를 사용해 구분
2	10대 하천유역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 단위의 행정구역명 정리
3	10대 하천유역 내 가불만한 지리여행지를 동선을 고려해 선별
4	3~8곳의 지리여행지를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1박2일 지리여행 코스 제시
5	유역별로 개발된 대권역을 직접 답사해 지리여행지로서의 가치를 점검
6	엄선된 향토의 지리여행지를 지형경관, 수문경관, 역사경관, 문화경관 등으로 구분
7	개발된 데이터 시트를 활용해 유역 지리여행의 세부 콘텐츠를 제작

다. 또한 인접되어 있는 두 지역의 경우 대권역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해 한 개의 소권역으로 묶어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송군은 낙동강 유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나 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해 동해안의 영덕시와 함께 소개하고 있기도 하

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박종관(2012)은 우리나라 지리여행지(지오사이트)를 모두 588개소로 구분, 이들을 80개의 1박2일 코스로 묶어 일반인들이 쉽게 유역 지리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해 놓고 있다.

상기의 표 1은 어디까지나 유역 지리여행을 즐기

위한 지역구분 사례에 불과하다. 콘텐츠 개발자에 따라 다양한 유역 지리여행법이 발굴될 수 있다. 표 2는 유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지오사이트 개발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유역 지리여행 콘텐츠를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융복합 콘텐츠

(1) 필요성

지리는 자연과 인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리여행은 자연과 인문을 함께 즐기는 융복합 여행이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시대이다. 지리여행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지리경관을 환경학, 지구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과학적 콘텐츠가 담겨야 하며, 자연과 인문의 향토 콘텐츠가 함께 녹아든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연은 자연대로 지형과, 물, 기후, 생물이 함께 녹아나는 콘텐츠로 발굴되어야 하며, 인문은 인문대로 역사와 문화, 도시와 마을이 혼합된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리여행 소재는 다양한 휴가패턴과 체형 중심의 여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용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융복합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

흔히 융복합(convergence)이란 여러 가지의 성능과 기술이 융합되어 합쳐지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관광산업에서의 융복합이란 용어는 다양한 관광 소재를 융합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융복합 관광분야를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관광공사는 융복합사업단을 구성해 융합관광산업이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콘텐츠를 비롯해 레저와 스포츠, 의료, 전시 등의 관광 소재는 ICT, BT 등의 기술과 함께 스마트 관광산업 구축을 위한 훌륭한 융복합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지리여행 콘텐츠도 융복합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상호 간은 물론, 자연지리 연구 분야는 자연지리끼리, 그리고 인문지리 연구 분야는 인문지리끼리 각각의 지리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지리학이란 학문은 그 자체가 융복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굳이 물리적으로 융복합을 시도하지 않아도 지리여행 콘텐츠는 화학적으로 융복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① 자연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

자연 지리여행의 핵심 콘텐츠는 기후학, 수문학, 지형학 등 자연지리학의 핵심 연구영역에서 생산된다. 자연 지리여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는 융복합 주체는 물이다. 물은 기후 경관과 지형 경관을 통합적으로 엮는 효율적 수단이다. 지구내적작용에 의한 경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형 경관은 물에 의해 만들어진다.

표 3은 지형 지리여행의 소재를 경관 종류 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산지 경관을 제외한 하천 경관과 해안 경관이 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 경관은 말할 것도 없다(표 4). 기상과 기후를 이루는 근본 요소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비와 눈, 기온, 바람 등은 물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대기후대에 속한 관계로 비록 다양한 기후 경관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사계절이 뚜렷

표 3. 지형 경관 종류별 지리여행 소재

경관 종류	규모	지형 지리여행 소재
산지 경관	대 소	산체 기복, 사면 경사도, 산사태, 평탄면, 침식분지 광물 및 암석, 암석 풍화, 절리, 암괴류, 식생, 인간과 산지
하천 경관	대 소	하천 유로, 구하도, 곡류도, 하안단구, 계곡, 폭포, 범람원, 삼각주 발원지, 하천침식지형, 하천 운반물질, 하천퇴적지형, 인간과 하천
해안 경관	대 소	해안선, 해안단구, 석호, 간척지, 간석지, 사빈, 자갈해안, 염습지 해안침식지형, 해안퇴적지형, 인간과 바다

표 4. 기후 경관 종류별 지리여행 소재

경관 종류	규모	기후 지리여행 소재
강수 경관	대 소	장마, 홍수, 가뭄, 눈, 빙하 우데기, 뜨릭, 눈축제, 수상가옥
기온 경관	대 소	식생, 작물경작 아궁이, 온돌, 얼음축제
바람 경관	대 소	계절풍, 태풍, 황사, 눈새바람 편향수, 방풍림, 까대기, 와가, 풍력발전소

표 5. 물 경관 종류별 지리여행 소재

경관 종류	규모	물 지리여행 소재
지표수 경관	대 소	하천습지, 저수지, 호수, 댐 계곡, 하천침식지형, 하천퇴적지형, 인간과 지표수
지하수 경관	대 소	하천배후습지, 산지습지, 해안습지 온천, 약수, 용천수, 인간과 지하수

한 기후 특성상 각 지역별로 즐길만한 기후 경관이 산재되어 있다.

한편, 물 지리여행도 매우 중요한 자연 지리여행의 한 종류이다(표 5). 지표수와 지하수를 찾아보는 여행은 자연을 알아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지리여행은 유명 지역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지리여행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인 것이다. 물순환과 물수지 과정 속에서 지표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수문현상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시된다면 이는 지역의 자연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표 6은 박종관(2005)이 제시한 자연 지리여행의 콘텐츠 목차를 수정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산지경관을 풍화와 석회암, 그리고 화산으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하천 지리여행, 해안 지리여행, 물 지리여행 등 자연지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분야 별 지리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대중을 위한 지리여행 방법서로 현장에서 발견되는 자연경관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문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
자연 지리여행의 융복합 주체가 물이라면 인문 지

리여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는 융복합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오고 있다. 기후와 지형조건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나름대로 특유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생활의 결집체가 민속이 되었으며, 이는 또 예술로 승화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재를 찾아 의식주를 해결했으며, 또 그들의 생활패턴이 오랫동안 집적되어 민족성과 국민성이 탄생되었다. 인문 지리여행은 이러한 한 집단의 문화를 탐미하고 분석하는 여행이다.

표 7은 유역 속에서 발견되는 인문 지리여행의 콘텐츠 구성안을 나타낸 것이다. 인문 지리여행 역시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이 표는 인문 지리여행을 문화, 역사, 도시, 마을, 산업, 그리고 먹거리 등 모두 6가지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콘텐츠 개발자에 따라 다양한 인문 관련 콘텐츠가 제공 가능할 것이다.

3) 대중 콘텐츠

(1) 필요성

지리여행의 난이도는 매우 중요하다. 너무 어려워도 또 너무 쉬워도 안 된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도

표 6. 자연 지리여행 콘텐츠 구성안

장	종류	세부 콘텐츠
1	풍화 지리여행	바위에 금이 갔어요 돌이 썩어 흠이 된다 바위 발판과 신기한 생김새의 바위들 화강암 미끄럼틀과 바위 바다 기반암이 산 모양을 바꾼다
2	석회암 지리여행	돌이 녹은 흠이 빨갱다? 들판에 가득한 양떼들과 구멍 뚫린 땅 석회암 지대의 지하수 네트워크
3	화산 지리여행	'볼케이노'와 '단테스피크'의 차이 화산분출 양식은 석영이 좌지우지? 화산체를 먼저 보자 화산에 가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4	하천 지리여행	하천의 발원지를 바로 알자 상류의 신비로운 바위와 아름다운 선녀탕 편안해진 중류부의 하천 모습들 하류의 드넓은 퇴적지형
5	바다 지리여행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해수욕장 뒤의 소나무숲 정동진은 용기를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 바닷물의 높낮이 변화도 지형을 바꾼다 간석지와 간척지
6	물 지리여행	유역의 물순환과 물수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재보자 지하수 여행과 지표수 유량 관측법 습지를 바로 알자 오염여행을 떠나 보자

자료: 박종관, 2005 수정

로 충분하다. 학문적으로 너무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러 온 여행객에게 무리한 공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을 채워주는 수준이면 족할 것이다.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적당하다. 재미있는 지리 콘텐츠를 개발해 내야 한다. 지리여행 콘텐츠는 쉽게 스토리텔링화 되어야 한다. 이는 초·중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과 과목의 세부 단원을 분석해 지리여행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며, 지나친 난이도로 지리여행

의 흥미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2) 체험 지리여행 프로그램 개발

지리여행은 체험여행이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인 체험여행을 위해 지리여행은 매우 유용한 형태의 여행수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5일제 근무제가 낳은 여행행태의 최대 변화는 당일여행에서 숙박여행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가족중심 여행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체험여행이 여행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표 7. 인문 지리여행 콘텐츠 구성안(예시)

장	종류	세부 콘텐츠
1	문화 지리여행	우리나라 지역문화 바로 알기 지역의 향토와 민속 특산물 세계유산여행 유형문화와 무형문화
2	역사 지리여행	역사 바로알기 삼국시대의 역사현장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현장 역사가 주는 교훈들
3	도시 지리여행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특색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4	마을 지리여행	우리 마을의 옛 모습은? 마을의 구조 그려보기 우리나라 마을의 입지 특징은 무엇? 마을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5	산업 지리여행	산업이란 무엇인가? 산업경관을 지배하는 지리학적 요소 산업별 자연경관과 인문경관 산업경관의 관광 요소를 바로 찾자
6	먹거리 지리여행	각 지역의 음식은 왜 다른가? 충청, 강원, 전북의 전통 먹거리 전라의 전통 먹거리 경상의 전통 먹거리

표 8은 체험여행을 위한 지리여행의 SWOT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최근의 우리 사회의 체험여행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체험여행으로서 지리여행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융복합 여행으로 지리여행은 매우 매력적이다. 2014년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리유산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도 지리여행이 체험여행으로서 자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리여행용 지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집을 나서기 전에 일정을 계획하고 대략적으로 아이들과 여행지에서 지리여행 볼거리를 추려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자녀들과 그들이 학교에서 무엇

을 배우는지, 그래서 체험학습지로서 어떤 곳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면 부모들은 당연히 그런 곳을 여행지로 선택할 수 있다. 지리여행은 현장학습을 위해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표 9는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초등학교 학년별로 사회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지리 영역은 촌락과 국토, 세계, 환경 등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사회 영역은 민주주의, 경제생활, 문화발전, 그리고 역사 영역은 도시발달과 주민생활, 삼국과 고려, 조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 교과내용은 주로 3~4학년의 저학년 을 대상으로 기술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현장학습 지

표 8. 체험여행을 위한 지리여행의 SWOT 분석

	기회 요인	위협 요인
강점	<SO 전략> 체험여행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사회교과의 현장체험학습 적합성 개인 및 소그룹의 개별여행 수요 증가 자연과 인문의 융복합형 학습여행 욕구 증가	<ST 전략> 현장에서 삶을 찾는 미래지향적 사고 부여 지방화 시대의 체험여행 적합성 홍보 역사 중심의 현장학습 인식 타파 지리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여행 코스 제공
약점	<WO 전략> 지리 교과에 대한 중요성 적극 홍보 현장체험학습 방문지 개발 교과와 연계된 현장체험 방법 발굴 대중들의 지리여행에 대한 인식 고취	<WT 전략>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지루하지 않는 생동감 있는 콘텐츠 개발 학교의 현장학습 사회교과 적합성 인식 근거리 여행지에서의 체험 효과 극대화 가능

표 9.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

구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초등 학교 3~4 학년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 모습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우리 지역, 다른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이웃과 소통하기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지역사회의 발전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초등 학교 5~6 학년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하나된 겨레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유교의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 독립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리여행 콘텐츠는 특히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만한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에 철저한 연구가 필요함을 뜻하고 있다.

한편, 표 10은 중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초등학교와 비교해 대체로 비슷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글로벌, 세계화, 다양성, 재해와 같은 단어들도 새롭다. 인구, 자원, 도시 등도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다. 일반사회 영역에도 경제생활, 국제경제,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단어들도 보인다. 역사 영역은 다른 두 개의 영역과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한 것으로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역사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

상기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과 주요 학습어들은 방문지의 지역성에 맞는 콘텐츠를 근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단원의 주요어를 콘텐츠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표 3~5에서 언급했듯이 매크로 스케일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울트라마이크로 스케일의 콘텐츠 발굴은 지리여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가족 중심의 여행문화의 정착과 함께 여행형태가 숙박 위주의 체류형으로 바뀌고 또 학습과 건강, 문화, 교양 등을 위한 체험여행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니즈를 충실히 파악해 자기주도 학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리여행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중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

구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중학교 1~3 학년	내가 사는 세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극한지역에서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자원의 개발과 이용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우리나라의 영토 통일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의 변동과 발전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경제생활의 이해 시장경제의 이해	일상생활과 법 인권보장과 법 헌법과 국가기관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국제경제와 세계화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역사 영역(근대 이전)		역사 영역(근대 이후)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고려의 성립과 변천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사회의 변동 통일제국의 등장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발전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 화와 민족운동 현대세계의 전개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리여행 운영법

1) 유역 지리여행 콘텐츠 사례

유역 단위의 지리여행이 어떤 체험적 요소를 갖고 콘텐츠화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대하천 중에서 자연환경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하천이다. 섬진강 유역에는 진안, 임실, 순창 등의 상류역과 곡성, 남원, 구례 등의 중류역, 그리고 하동, 순천, 광양 등의 하류역 곳곳에 섬진강의 지리적 특성이 잘 배어난 곳들이 많아 하천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표 11은 이러한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섬진강 지리여행의 목적을 비롯해 섬진강의 관찰 내용, 지리여행 방법, 기대효과 등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한편, 표 12는 섬진강 지리여행을 위한 지점별 주요 콘텐츠를 제시한 것이다. 섬진강 유역을 구성하고 있는 9곳의 기초지자체를 섬진강 지리여행의 대권역으로 설정하고, 그 대권역 중에서 불만한 1박2일 지리여행지를 선별해 그곳의 주요 콘텐츠를 정리하였다. 가족 단위의 여행은 편안하고 안전한 여정이 바람직하다. 지리학도와 같이 욕심내어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향토색을 마음껏 느껴보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지리여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유역 지리여행의 코스 설정은 여행자가 자유 선택하여야 한다.

2) 지리여행 대중화 운영 제언

(1) 운영 방침

지리여행이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 정도되었다.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설강된 지도 15년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여행이 현실적으로 대중 체험여행으로서 일반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지리여행이 재미있는 테마여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지리여행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리여행의 코스를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인 지리여행 코스를 크게 부각시켜 여행지 1곳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고 여행객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며 지역성을 알아가는 묘미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리여행을 기획 및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지리여행 큐레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지리여행 큐레이터는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소정의 큐

표 11. 섬진강 지리여행을 위한 체험학습 안내서 작성 사례

<p>■ 섬진강 지리여행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탐방객들에게 섬진강이라고 하는 관광 대상체를 경치구경 수준의 단순관광의 범주를 벗어나 자연공간에 전개되어 있는 섬진강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게 해 섬진강만이 갖고 있는 하천경관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한다. ○ 섬진강 유역 속에 담겨 있는 지역의 향토문화 특색을 여행지 방문을 통해 자연스레 깨닫도록 한다. 이는 탐방객들에게 문화 태생지인 하천공간을 둘러보게 함으로써 문화공간으로서의 유역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 인간의 필수 생활요소인 물 환경의 관찰을 토대로 유역의 소중함을 인식해 유역여행을 환경적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의미를 느끼도록 한다. 섬진강 지리여행이 끝난 후 머리 속에 떠오른 섬진강 유역 형상을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도록 한다.
<p>■ 현장에서의 섬진강 관찰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은 우리나라의 하천 중 자연환경이 최고로 잘 보전되어 있는 하천으로 하류 지역보다는 중상류 지역의 하천공간이 더 넓은 지형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섬진강은 동진강 수계를 통해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수자원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이다. ○ 금강과 분수계를 나누며 남하하고 있는 섬진강은 영남과 호남을 구분하는 문화의 경계선으로 섬진강 인근의 양대 향토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다. ○ 두꺼비가 울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섬진강은 주변지역 곳곳마다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진 이야기의 보고이다.
<p>■ 섬진강 지리여행 방법(발원지~순창 구간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 ○ 섬진강 발원지: 천상데미 샘에서의 지리여행(우리나라 5대강 발원지의 지형학적, 수문학적 특성을 흥미롭게 설명) ▶ 중간점 ○ 마이산: 역암의 최대 산지인 마이산의 지질, 지형학적 특징, 마이산의 지역에서의 의미, 탐사의 경관 등 산지(山地) 지리여행 콘텐츠를 제공 ○ 진안 마실길: 진안고원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평이한 마실길 한 구간 선택해 지역의 향토 특성을 전달 ○ 임실 치즈마을: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임실 치즈마을의 유래 및 치즈,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애를 느끼는 시간을 확보 ○ 옥정호: 섬진강댐이 만든 호수를 보며 자료를 통해 호남평야의 수자원을 평가 ▶ 종점 ○ 순창고추장 단지: 우리나라 고추장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순창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체험
<p>■ 섬진강 지리여행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의 광대한 자연환경 구성 요소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 섬진강 유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섬진강 유역 내의 지리여행 방문지들의 위치와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레이터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급의 자격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배치된 지리여행 큐레이터는 지역 특유의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방문객들의 동선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리여행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지리여행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2) 사업화 방안

지리여행을 통한 경제활동 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

성을 토대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 보급해 지역 특성을 알리는 작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여행객의 여행 기념품으로 농수산 특산물(56.7%)을 비롯해 지역상징물 캐릭터(17.5%)와 지역문화재 모형소품(15.9%) 등을 들고 있다. 캐릭터와 모형소품의 합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10명 중 3명이 지리 관련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여행의

표 12. 섬진강 지리여행을 위한 지점별 주요 콘텐츠

권역명	지점명	주요 콘텐츠	구분
진안권	데미샘	섬진강 발원지, 너털길, 지중수 유출, 강수패턴, 계류수	자연
	마이산 탐사	백악기, 퇴적암, 역암, 타포니, 이갑용, 돌탑군	자연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 인삼, 민물어구, 산신제, 진안유산	인문
	진안홍삼스파	홍삼, 온천, 물순환, 지하수, 웰빙, 치유	인문
	진안고원 마실길	생태관광, 고원, 마을만들기, 영주 소백산길과 비교	인문
임실권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 낙농, 지정환 신부, 요리 체험, 박물관	인문
	섬진강댐, 옥정호	최초 다목적댐, 유역변경, 운암제, 호남평야, 칠보발전소	자연
순창권	구담마을	섬진강 유로, 천담마을, 아름다운 시절, 하천퇴적물	인문
	요강바위	장구목, 섬진강협곡, 포트홀, 불법반출, 한국전쟁	자연
	순창고추장마을	메주, 문옥례 할머니, 전통가공, 이성계, 제조역사, 된장	인문
남원권	광한루	춘향전, 팔각지붕건물, 황희, 오작교, 정철, 정유재란	인문
	춘향테마파크	춘향던, 성춘향, 이몽룡, 부용당, 월매집	인문
곡성권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침곡역, 가정역, 전라선	인문
	심청 이야기마을	심청전, 한옥펜션, 심봉사,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	인문
	곡성천문대	천문대, 별자리, 과학체험, 천문	자연
	섬진강 자전거길	가정역,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섬진강길	인문
순천권	주암댐	보성강, 여천광양공단, 도수터널, 상사댐, 상사호	자연
	송광사	3대 사찰, 해인사, 통도사, 승보사찰, 조계산, 주암호	인문
구례권	화엄사	백제, 화엄경, 각황전, 사사자 삼층석탑, 영산회괘불탱	인문
	산수유마을	계척마을, 산수유 시목, 산동, 상위마을, 지리산온천	인문
	구례선상지	서시천, 노고단, 복합선상지, 봉성산, 화엄사선상지	자연
하동권	하동녹차	죽로차, 작설차, 우전, 안개, 세작, 중작, 대작	인문
	화개장터	영호남, 역마, 조용남, 화개천, 벚꽃축제, 재첩국	인문
	쌍계사	쌍계천, 불일폭포, 구층석탑, 진감선사탑비, 성보박물관	인문
	평사리공원	다사강, 섬진강 모래, 토지, 토사운반 방식, 홍수, 유량	자연
	최참판댁	박경리, 토지, 악양분지, 별당아씨, 부부송, 동정호	인문
광양권	매화마을	홍쌍리, 청매실, 다압면, 섬진마을, 섬진강 협곡	인문
	장도박물관	전통 갈, 은장도, 장인정신, 체험활동	인문
	광양제철소	광양만, 탄소강, 미니밀, 자동차 강재, 포스코	인문

자료: 박종관, 2012 수정

특산물 제작이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여행 사업화 방안으로 지리여행 전문 여행사를 설립해 지리여행을 학급 단위의 수학여행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지리여행 전문 앱을 개발해 현장관찰을 토대로 한 지리사진 촬영과 스케치, 각종 향토 콘텐츠의 참여를 통해 체험학습 효

과를 높이도록 한다. 지리여행을 환경보전 운동과 결합해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에 지리여행 본부를 두고 각 지역에 지리여행 지부를 개설해 각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 특산물을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인의 지리여행 참여를 위한 쌍방 참여형 지리여행 홈페이지를 제작해 지리여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화

방안을 실시하도록 한다. 지리여행의 학습도구도 제작해 교과 내용을 현장으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관광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수단으로서 지리여행의 정의와 필요성, 지리콘텐츠의 성격과 개발법 그리고 지리여행의 운영법 등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서의 지리유산을 활용한 지리여행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리여행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수단인 현장 답사를 일반화한 새로운 형태의 테마여행이다. 지리여행은 어떤 지역의 자연과 인문경관을 탐구하는 관찰여행이며, 역사 중심의 관광패턴을 뛰어넘는 포괄적 환경여행이다. 지리여행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4권역 중 기권, 암권, 수권 등의 3권역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는 답사여행이며, 특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의식주를 탐미하는 향토여행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리여행은 가족여행과 현장체험여행을 위해 최적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 주변의 산지, 하천, 해안, 물경관의 형성원리를 터득하는 자연지리여행과 마을의 역사, 문화, 산업, 먹거리 현장을 찾는 인문 지리여행은 우리 국토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지리여행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여행 콘텐츠 구성의 독특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유역 단위의 지리여행 콘텐츠, 융복합 지리여행 콘텐츠, 난이도를 낮추는 대중 지리여행 콘텐츠 등의 세 가지를 지리여행 콘텐츠 개발의 구성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리여행 콘텐츠 구성 원칙은 지리여행 콘텐츠의 스토리텔링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며, 차별화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유용한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의 효

율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공간여행으로서의 지리여행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역 단위의 지리여행법이 매우 효율적이다. 지리여행은 점(點) 여행을 지양한다. 하천을 따라 상류로부터 하류를 향해 이동하는 지리여행은 우리 국토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역 지리여행은 다른 테마여행과 크게 구별되는 지리여행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현실적으로도 하천을 따른 동선은 여행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유역을 찾는 지리여행은 우리 국토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넷째, 지리여행 콘텐츠는 융복합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산지경관과 하천경관, 그리고 해안경관 등의 지형경관은 기후경관과 함께 물이라는 주제어로 융합되며, 역사와 문화, 도시와 마을, 산업과 경제라는 인문지리여행 소재들은 사람이라는 주제어로 융합된다. 따라서 인간과 물은 지리여행 콘텐츠의 통합 주제어인 것이다. 자연과 인문이 결합된 지리여행 콘텐츠는 생활여행을 위한 융복합 시각을 전달해 줄 것이다.

다섯째, 지리여행은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체험학습여행이다. 지리여행은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 지리여행은 지리학의 학문 속성인 답사를 근간으로 개발된 관찰여행이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사회교과에 제시되어 있는 단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방법으로 지리여행이 최고의 도구로 작용되어야 함이 판명되었다. 지리 영역은 물론 역사와 일반사회 영역을 감싸는 여행 패턴으로 지리여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지리여행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리여행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지리여행의 대중화는 요원할 것이다. 지리여행의 대중화 방안으로 우선 지리여행 코스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콘텐츠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지리여행 큐레이터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리여행 큐레이터는 지리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리여행 관련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농수산 특산물 위주의 관광 상품도 좋지만 지역 콘텐츠를 담긴 지리여행 캐릭터가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방문지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고품격 여행 캐릭터는 지역의 훌륭한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여행은 창조관광 달성을 위한 효율적 여행형태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리여행은 우리 국민의 선진국형 자연환경 인식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국민들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소양 증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여행은 환경사상을 강화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자연스레 애국심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리여행이야말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여행이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학계는 물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고정아, 2000, 우리강산 지리여행, 대교출판.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부 고시 제2012-14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 2004, 제50회 국정과제회의 결과 발표문.
 권동희, 2011, “제주도 지오파크의 발전적 콘텐츠 개발-산방산·용머리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8(3), 1-10.
 권동희, 2013a,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하롱베이 지형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12.
 권동희, 2013b,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일본 산인해안 지오파크”, 한국지형학회지, 20(2), 103-116.

권오홍, 1987, “국민생활행태 및 여행패턴의 변화와 전망”, 입법조사월보, 157, 110-124.
 글로박스, 2009, 세계문화여행 역사지리여행 시리즈물.
 김홍민·이영주, 2012, “여행패턴의 변화, 관광공간의 진화”, 정책메모, 190, 강원발전연구원.
 노응희·박병석, 1994, 교실밖 지리여행, 사계절.
 박경·김창환, 2012, “강원도 양구, 화천 일원의 분지지형과 지오투어리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9(4), 97-108.
 박민영·박경, 2012,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175-187.
 박정애·엄정훈, 2007, 땅이 가족의 황당 지리여행, 살림.
 박종관, 2005, 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 지오북.
 박종관, 2012, 한국지리여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박종관,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안데스 파타고니아와 아타카마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0(4), 15-28.
 송재호·허향진·홍성화, 2003, “IT를 활용한 제주도 온라인 여행시장 종합조사와 사이버 여행패턴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의 eBusiness 전략”, 관광경영연구, 17, 75-104.
 원종관·이문원·진명식·최무장·정병호, 2010, 한탄강 지질탐사 일지, 지성사.
 윤재진, 1994, “관광패턴의 변화와 새로운 관광상품의 등장”, 관광논단, 40-46.
 윤웅, 1995, 북한의 지리여행, 문예산책.
 이승진, 2012, 1등으로 보는 세계지리여행, 꿈꾸는 사람들.
 전국지리교사모임, 2009, 지리세상을 날다, 서해문집.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53-69.
 정필모·서종철·전영권·신영규, 2010,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주왕산 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7(2), 77-86.
 지리교육연구회지평, 2005, 지리교사들 남미와 만나다, 푸른길.
 지리누리, 2007, 지리교사들 미국 서부를 가다, 푸른길.
 한국지구과학회, 2009, 주말지질여행, 이치사이언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도

- 지질여행.
- 허남철, 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리 현장학습을 위한 실험적 연구-강원도 영월군을 사례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Ollier C., 2012, Problems of geotourism and geodiversity, *Quaestiones Geographicae*, 31(3), 57-61.
- Joyce B., 2007, Geotourism, Geosites and Geoparks: working together in Australia. *The Australian Geologist, Newsletter*, 144, 26-29.
- Słomka T., 2008, Geodiversity of Poland. *Polish Geological Review*, 56, 584-587.
- Thomas M.F., 2012, A geomorphological approach to geodiversity-its applications to geoconservation and geotourism. *Quaestiones Geographicae*, 31(1), 81-89.
- 내셔널지오그래픽사, <http://travel.nationalgeographic.com>
- 러시아 지리여행, <http://info.geotour.ru>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아제르바이잔 지리여행, <http://geo-travel.az>
- 아이슬랜드 지리여행, <http://geotravel.is>
- 예술의 전당, <http://www.sacticket.co.kr>
- 조트라 지리여행, <http://www.jotra.com>
- 지리학에 대하여, <http://geography.about.com>
- 한국지질공원망, <http://www.koreageoparks.kr>
- 교신: 박종관,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jkpark@konkuk.ac.kr, 전화: 02-450-3431)
- Correspondence: Jongkwan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143-701, Korea (e-mail: jkpark@konkuk.ac.kr, phone: +82-2-450-3431)
- 최초투고일 2015. 1. 26
- 수정일 2015. 2. 6
- 최종접수일 2015. 2. 7